



01차시 문화의 개념과 특징

1. 문화의 개념

1) 문화의 이해

인간은 복잡한 이 세상에 규칙을 만들어 질서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왔음. 이것은 사회의 혼돈을 막고,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요, 산물임.

2) 문화의 개념

문화(culture)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자연(nature)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임. 이러한 문화는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음.

문화 개념은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 culture를 번역한 말로, cultura는 라틴어 colere로부터 유래함. 회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lere의 어원을 살펴보면, 농지를 경작하다, 경작된 농지, 경작, 제작하다 등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17-18세기에 문화는 '경작', '재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이후 문화는 정신을 경작한다는 의미에서, 문화는 정신문화를 의미하였으며, 계몽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음. 최근에는 교양이나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음.

경작, 재배는 인류가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채취하거나 수렵하는 단계를 벗어나 인위적으로 농경지를 조성하여 밭을 갈아 농작물을 기르게 되면서 생긴 말임. 여기서 문화의 1차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음: 문화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환경조건인 자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식으로 변형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임. 즉 문화는 자연 그대로의 것(nature)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다가 인위적인 무언가를 가한 것(cultura)임.

그러나 자연에 무조건 무언가를 부가했다고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님. 자연에 창의와 노동을 부가하는 노력에 의해 문화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도시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도시에 처음부터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대중교통 시설이 생기고, 문화 시설이 들어선 것은 아니었음.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만들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농촌과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도시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 구체적으로 도시에는 농촌에 비해 고층건물이 많이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이 편리하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음.

앞서 거론했듯이, 자연에 인위적인 것을 가한 것이 문화가 되기 때문에, 문화와 자연은 대비됨. 그러나 진화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 정신적, 육체적 노화 등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문화는 자연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음.

Raymond Williams는 각 학문영역이 발달할수록 문화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문화의 의미만 1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였음. 또한 문화를 읽는 것은 언제나 다층적인 이해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동반하는 작업이라고 보았음. 즉 논의하는 방식에 따라 문화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임.

분야	학자명	문화의 여러 개념
인류학	E. B. Tylor	지식, 신앙, 예술, 법,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들과 습관들의 총체
	F. Boas	어떤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의 모든 표현들
	M. J. Herskovits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표시하는 신념, 태도, 지식, 금기, 가치, 목표의 총체를 기술하는 구성물
	R. W. Lynd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는 일, 행동방식, 사고방식, 감정, 사용하는 도구, 가치, 상징의 총체
	E. T. Hall	인간의 매체
	C. Geertz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복합체가 아닌 행동을 지배하는 일단의 제어 기제들
	R. Benedict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로 제공되는 것

분야	학자명	문화의 여러 개념
문화 사회학	R. Bocock	1. 토지, 곡식, 가축의 경작의 의미 2. 정신, 예술, 문명의 배양이라는 의미 3. 사회발전의 일반적 과정의 의미 4. 보편적 과정이라는 의미 5.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 의미화 하는 실천
	R. Peterson	집단활동을 통해 생성된 상징적 산물들
	R. Wuthnow & M. Witten	사회적 형태로 산출된 상징적 사물이나 상품
	E. W. Said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명분들이 뒤섞이는 일종의 극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 개념이 있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학자는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인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E. B. Tylor임. 그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음. 이것을 정리하면, 문화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의 종합체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임. 즉 타일러는 문화를 정신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과 대비되는 의미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바꾸어 놓은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으로 보았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생활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뜻함.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일본인은 일본어를 하고, 중국인은 중국어를 한다는 것은 언어문화가 다르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언어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생활양식이라고 하여, 졸리면 자고, 배고르면 음식을 먹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임. 문화는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측면은 제외함. 또한 어떤 한 개인이 유독 거리에 침을 뱉는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습관일 뿐 문화라고 할 수 없음. 문화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2. 문화의 형성

문화는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처럼 자라고, 노쇠하고, 스러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으며, 전달되거나, 전파되지도 않음. 문화는 서서히 형성되고, 공유되고, 일정한 방식을 가지고 전파되지 않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전파됨.

1) 문화의 자생

문화는 인간이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자연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임. 한 집단 혹은 국가의 문화를 보면, 자생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문호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생적인 문화가 많았으나, 문호가 개방되면서 외래적 문화와 뒤섞여 무엇이 한국문화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즉 문화의 정체성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자생적인 문화는 가장 원초적인 문화로 그 뿌리가 쉽게 변하지 않음. 그 이유는 인간이 그 환경에 태어나면서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저절로 습득한 문화이기 때문임. 반면,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성장한 인간이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문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됨. 왜냐하면 자생적 문화는 몸에 새겨진 체험의 문화라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은 그 문화를 경험하고, 머리로 익히기 때문임.

2) 문화의 유입

문화의 유입으로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남. 문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입됨. 문화의 유입은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짐. 직접적인 경우가 있고, 간접적 경우가 있음. 평화적 유입이 있고, 강압적인 유입이 있음. 가시적 형태로 유입되기도 하고, 비가시적 형태로 유입되기도 함. 예를 들어, 직접적인 경우는 이주, 관광, 여행, 견학, 유학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경우는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 책 등을 통한 미디어 매체가 있음. 식민지배의 경우 강압적 유입이지만, UN 평화군 등을 통해 평화적 유입이 가능함.

문화가 유입될 때, 원래 존재하고 있던 자생적 문화에 충격을 주며 변화를 유발함. 그러나 오히려 기존 문화의 특정한 측면으로 외래적 문화의 유입이 쉽게 나타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전통적 종교문화가 토속신앙의 요소로, 오히려 다른 문화권에 의해 침략을 당한다고 해도, 침략 문화권의 종교문화가 쉽게 정착될 수도 있음.

또한 문화의 유입과정에서 지식, 기술 등의 전달로 인해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일본 아스카 문화는 백제로부터 불교, 글자, 유학 등을 전달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음.

3. 문화의 성격

문화에는 공유성, 보편성, 축적성, 변동성, 학습성 등 다섯 가지의 속성이 있음.

1) 공유성

문화는 공유됨.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어떤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언어, 음식, 의복, 예술 등이 있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식을 먹으며,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문화예술을 즐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파스타, 피자 등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이탈리아 전통 문화예술을 즐김. 이러한 것이 개인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유되고 있음. 어떤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불가능 함.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찰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임. 공유되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행동 양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2) 축적성

문화는 축적됨. 문화는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됨. 우리의 생활양식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고 이전 세대들의 문화가 그대로 전승되는 것은 아님. 전승되는 과정에서 현 세대에 맞게 바뀌기도 하고, 이전 세대의 문화에 새로운 지식과 내용이 추가되기도 전승됨.

문화가 축적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임. 언어와 문자의 사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승할 수 있는 것임. 예를 들어 춘향전, 심청전 등 고전문학이 현 세대에 전달된 것은 문화를 축적할 수 있는 도구인 문자가 있어서 가능했음.

3) 학습성

문화는 학습됨. 인간은 태어날 때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음. 인간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임. 인간은 1차 사회 구성원인 가족(부모, 형제 등)에게 처음 문화를 배우고, 2차로 학교에서 3차로 사회에서 문화를 학습함.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한국인으로서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과 수저 사용법을 배우고, 가족 및 다른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움.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됨. 또 다른 예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덴마크로 양육된 사람은 덴마크의 문화를 배우게 됨. 그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음식을 다른 한국인들처럼 즐기지 못 하는 것은, 덴마크에서 성장하며, 그러한 문화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 즉 그 사람이 학습한 문화는 덴마크라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무조건 한국문화에 익숙한 것은 아님.

또한 인간은 텔레비전, 책, 인터넷,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고,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를 통해 또래문화를 접할 수도 있음. 이렇듯 문화는 평생에 걸쳐 학습이 진행됨.

또한 문화가 공유된다고 해서, 축적된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까지 문화라고 하지 않음. 생물학적인 것은 문화라고 하지 않음. 예를 들어 눈을 깜빡이거나, 하품을 하거나, 배고파서 식사를 하거나, 매운 냄새를 맡았을 때 재채기를 하거나,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입술이 파랗게 되는 것 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인간 본성에 의한 것이므로 문화라고 하지 않음.

4) 전체성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디에든 존재함.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들은 통합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한 부분이나 요소의 변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즉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 예를 들어 호주음식을 먹고서 호주에 대한 모든 문화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독일 전통의상을 경험해 보았다고, 독일의 모든 문화를 이해했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임.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식, 의상, 주거형태,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5) 변동성

문화는 변동함. 문화는 항상 변화하며,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가미됨. 즉 문화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리적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해 감. 문화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하기도 함. 예를 들어 이전에는 촛불이 시위문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국산 소고기 반대, 대통령 탄핵 관련 등에서 촛불은 평화로운 집회 상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또한 애정문화도 변하였음. 예를 들어 1989년대 노사연의 ‘만남’을 보면 “우리 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말아. 후회하지 말아. 아 바보같은 눈물 보이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라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최근 대중가요에는 80, 90년대 사랑을 표현한 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자이언티의 ‘Complex’를 보면 “살이 좀 찼으면 좋겠어. 넌 내 마른 몸을 좋아하지만 안아줄 때 같이 잘 때 너 팔베개 깔아줄 때 너의 목 건강을 위해 내 키가 좀만 컸으면 좋겠어. 네가 만나던 키 큰 애들보다 그리고 손도 조금만 더 컸음 해. 어 근데 그건 더 안 커도 될 것 같아.”

또한 문화가 변화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으나, 그것이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대학문화를 들 수 있음. 80년대 대학문화, 90년대 대학문화, 2000년대 대학문화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또 다른 예로 통신문화가 있음. 고대에는 불이나 연기가 통신 수단이였다면, 그 다음에는 말, 편지, 뽀뽀, 전화, 핸드폰, SNS 등으로 변화되었음. 그러나 그것이 시기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보면, 1940-1950년대는 트로트와新民요가 주를 이루었으며, 1960년대는 트로트가 주를 이루었으며, 포크음악과 댄스음악 등의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였으나, 미국 부대에서 활동한 한국 최초의 록 밴드가 한국 대중가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1970년대는 한국형 포크음악이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는 발라드,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하였으며, 해외 음반사들이 국내 진출을 하였으며, 1990-2000년대는 발라드, 댄스음악, 록 음악 등이 전성기를 누렸으며,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